

광주 경기 점차 회복...전남은 여전히 어두워

광주 자동차 수출 호조...전남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 불황 호남통계청 5월 산업동향... 소비 냉각, 건설 수주는 증가

자동차 수출 호조에 힘입어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이 점차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전남은 석유화학 등 주력업종의 불황이 이어지면서 생산·소비·재고 모두 악화됐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28일 발표한 '2019년 5월 광주·전남지역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역 광공업 생산지수(기준값 100)는 각각 103.9와 99.1을 나타냈다.

광주지역 광공업 생산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3% 증가했다. 4월(9.4%) 상승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2개월 연속 올랐다. 전달(107.1)보다는 6.6%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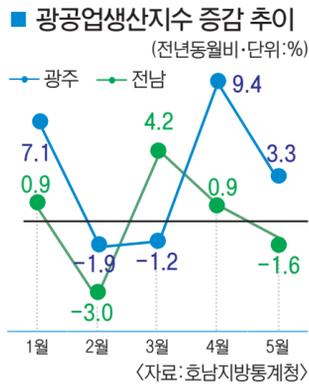
광주 생산지수가 지난해보다 높아진 데는 자동차(5.2%), 기계장비(7.3%), 전기장비(6.6%) 부문의 생산물량 증가가 한 몫 했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주력 차종인 쏘울과 스포티지의 4월 중 생산량은

3만2515대로 올해 1분기 월 평균 2만 8441대보다 14.3% 증가했다. 반면 담배(-66.5%)와 레미콘 등 비금속광물(-24.7%) 생산은 줄었다.

출하도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했고, 재고는 2.5% 줄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4월(82.6)보다 조금 오른 94.7을 보였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3.9% 감소한 수치로 백화점(-2.3%), 대형마트(-5.6%)의 판매 부진을 반영했다. 상품군별로 신발·가방(36.2%), 가전제품(15.4%)의 매출은 올랐지만 음식료품(-16.7%), 오락·취미·경기용품(-6.5%) 부문에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 성향을 보였다.

5월 광주지역 건설수주액은 4282억원으로 전국 수주액 8조6850억원 중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는 510.1% (잠정치) 증가했다.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생산지수는 99.1로 다시 '100' 아래로 떨어졌다. 전달(100.0)보다 감소하고 지난해(100.7)보다 1.6% 떨어진 수치다.

전남 생산 부진은 동부권 주력사업의 하

나인 석유화학산업이 수출 호황을 마감하고 '마이너스'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석유정제(-26.0%), 화학제품(-7.7%), 기계장비(-54.8%) 생산이 크게 줄었고 컨테이너선 등 기타 운송장비(41.0%), 전기기사업(17.6%) 생산은 늘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지역 5월 광공업 재고를 비교하면 106.2(2017년)→108.2(2018년)→115.1(2019년)로 매년 늘고 있다. 아연도강판·열연강대·칼라강판 등 1차 금속(22.2%)과 타이어 및 튜브·발포성형제품 등 고무 및 플라스틱(43.1%)의 재고가 크게 늘었다.

5월 전남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90.8로 전국 평균지수 99.7과 비교하면 여전히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나타냈다.

전남지역 건설수주액은 지난해보다 4.5% 증가한 5515억원을 기록했다. 지자체·공기업 등 공공부문 수주액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65.1% 감소했지만 민간 수주액이 26.3% 증가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은행 상생 선불카드 10% 특별할인

광주은행이 1일부터 광주상생카드(선불카드)를 10% 특별할인 판매한다.

광주은행은 "2019 광주FINA 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앞두고 1일부터 광주상생카드를 광주은행 모든 영업점에서 10% 할인 판매하며 수영대회 선수촌 내의 환전소에서도 판매를 진행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광주상생 선불카드는 3만·5만·10만·20만·50만원권이 있으며, 광주지역 9만여 개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1인당 월간 50만원까지 할인 구매할 수 있고 광주시 할인판매 지원 예산(25억원) 소진 때까지 선착순으로 살 수 있다. /최재호 기자 lion@kwangju.co.kr

10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층 금융상품 정보 가족에 제공

오는 10월부터 만 65세 이상의 고령층 고객이 원하면 자신의 금융상품 가입 정보를 가족·지인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함께 '고령층 금융상품 계약 시 지정인 알림서비스'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만 65세를 넘는 고객이 희망하면 가족이나 지인 중 지정인을 선택하고, 금융회사가 지정인의 정보를 얻은 뒤 안내 메시지를 전송한다.

안내 메시지는 고령의 고객이 가입한 상품명과 금융회사, 가입 시점 등이 담긴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새로운 30년 책임질 제2의 출발점 서 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신사옥에서 열린 호반그룹 30주년 창립 기념식에서 김상열 회장과 임직원들이 우수 협력사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호반그룹 제공)

호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 “새로운 30년을 책임져야 할 제2의 출발점 서 있습니다. 정직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문화와 바탕으로 새로운 세대를 책임지는 주역이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28일 서울 서초구 신사옥에서 열린 호반그룹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상열 회장은 “조금 불편하고 먼 길을 돌아오더라도 정직하게 원칙을 지켜온 것이 지난 30년 간 우리가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임직원이 인화단결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행사에는 그룹 김상열 회장과 임직원들, 협력사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각 현장과 사업장 직원들도 기념식 중 계방송을 시청했다.

행사에서는 장기 근속자에 대한 포상도 함께 했다. 또 그룹과 30년을 함께 한 우수 창건설 등 총 61개 우수 협력사 관계자들에게 감사패와 상생협력기금 전달식도 진행했다.

1989년 설립된 호반건설(호반그룹)은 지난달 기준으로 자산규모 8조5000억 원, 재계 순위 44위로 성장했다.

호반은 종합건설, 레저, 유통, 금융업 등 사업 다각화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11년 광주·전남 민영방송 KBC 광주방송의 대주주가 된 데 이어, 지난 25일 서울신문의 포스코 보유지분 19.4%를 전량 매입해 3대 주주가 됐다.

또 2017년 제주도 중문관광단지 내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산업에 진출했다. 지난해에는 법정관리에 들어선 리솜리조트를 인수했으며, 울릉도 덕평CC(컨트리클럽)와 서서울CC 등 골프장을 잇달아 인수해 레저산업을 강화했다.

최근에는 채소류 유통 1위 업체인 대아청과를 인수, 농산물 유통사업 진출을 선언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 로또복권 (제865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3 15 22 32 33 45	2	
등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1,551,729,145	13
2 5개 숫자+보너스숫자일치	64,655,382	52
3 5개 숫자일치	1,619,499	2,076
4 4개 숫자일치	50,000	104,626
5 3개 숫자일치	5,000	1,749,234

계약 취소 아파트 무주택자에게만 공급

'주택공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에게 추정 방식으로 공급된다. 지금까지는 계약 취소 물량이 20가구 이상이면 무주택자에게, 20가구 미만일 경우 만 19세 이상 성인 모두에게 추정 기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 계약 취소 규모가 20가구 미만인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만 다시 추첨이 이뤄진다는 얘기가.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오는 16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친 뒤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공급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될 경우 이 물량은 해당 지역 특별공급(다자녀·신혼부부 등) 아파트의 계약이 취소되면, 해당 지역의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들끼리 다시 추첨한다. 예를 들어 다자녀 특별공급 아파트 취소 분은 결국 똑같이 다자녀 특별공급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돌아가게 된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중기 생산직 일급 9만4631원...지나해보다 8.6% ↑

중기중앙회 1300곳 임금조사 기 8만8503원과 비교하면 6.9% 상승했다.

올해 3월 기준 중소기업업체 생산직 종사자의 하루 일급(일급)은 평균 9만 4631원으로 조사됐다.

지난 30일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매출 30억원 이상, 종사자수 10인 이상 중소기업업체 1300곳을 대상으로 '2019 상반기 중소기업직종별 임금조사' 결과, 올해 3월 기준으로 생산직 근로자 전체(129개 직종) 평균 일급은 9만 4631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8만7177원보다 8.6% 높아진 것이다. 또 지난해 하반기 8만8503원과 비교하면 6.9% 상승했다.

일급이 가장 높은 직종은 전기기사로 12만3617원이었고, 이어 CAD설계사(회로) 12만2906원, 패턴사 12만1218원, 화학공학품질관리사 12만841원, 전기산업기사 11만8220원 순이었다. 가장 낮은 직종은 코일제품을 만드는 신선기조직원으로 7만2310원이었다. 유리제품생산기계조직원(7만5724원), 조형원(7만6771원), 부품조립원(7만6928원), 단순노무종사원(7만8023원) 등도 노임단가가 낮았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주)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영로 17번길 9 거승빌딩

임대 문의 (062)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자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원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원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종리동
- 전남 목포시
- 전남 화순군
- 전남 담양군
- 전북 완주군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